▶▶ 매일 INDEX

12면
남원시, '문화의 달' 기념행사 성료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음 9월 21일) 제3608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

관련기사 2면 · 16면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간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전북,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 기대

22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우재 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죽선 퍼포먼스를 하며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MBN,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22차 대회는 기업 전시회 등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 개회식은 22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였며, 주최 및 공동주관기관장들을 포함한 주요 정부 인사와 국내외 경제인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예향의 고장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멋을 담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었다. 개회식이 끝난 뒤 이어진 환영만찬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을 내놓아 인기를 얻었다.

대회 첫날에는 개회식 외에도 기업전시관 개막, 대학생창업경진대회, 영비지니스리더포럼(YBLF)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대회 23일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스타트업 경연대회, 벤처캐피탈(VC) 투자포럼, 리딩CEO 포럼,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위촉식, 청년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덕 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전통과 혁신의 도시 전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22차 한인 비즈니스대회에 세계 각지에서 고국을 찾아주신 재외동포들을 환영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글로벌화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라고,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조국 성장 발전에 더욱 힘써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전북에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전북의 경제인들에게 성공적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개회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신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세계경제위기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식 축사를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유치해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대회가 전북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中, 한복 등 우리 전통문화 침범 심각

전통문화 홍보·관리 시스템 절실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아 우리 전통문화 수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10월 22일자 1면〉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전국 지자체의 축제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22일 현재 통합 축제인 전주 페스타는 폐막을 불과 4일 남기고 있다. 전통문화 중 특히 한복체험은 페스타 기간 중 매일 진행되고 있는 중요 전통문화이다.

축제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불안감이 든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아리랑과 판소리 등 한국 무형 유산 101건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서 무형 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탕수육'을 인천 차이나 타운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전통음식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한 줌 조선족을 내세워 남북 7,500만 명이 수천 년 공유하는 전통문화를 중국 거라는 억지이다.

이들은 한복을 비롯한 김치, 한옥, 구들장 등 지구촌이 호평하는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시 "국내외 홍보 시스템 조성"

학계 일부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온라인상 네티즌 차원이라고 경시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 정부의 전형적 방법은 관영매체와 주요 언론기관이 합세하고, 몇몇 교수들이 거들면, 속칭 '국뽕세뇌'된 무수한 중국인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게 현실이다.

억지 주장이 중국 14억의 입에 의해 당연시되면, 우리는 한복을 세계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즉 우리 문화를 눈뜨고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과 문화적 갈등이 꾸준히 반복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전통 도시를 자타 공인하는 전주시도 전통문화를 지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복입은 중국시녀로 논란이 되었던 중국 드라마 '소주차만행'의 한 장면.
〈사진=소주차만행 화면 캡처〉

전주는 한국 전통 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우리 문화에 대한 홍보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

우범기 전주 시장이 한옥 마을 등 전주의 전통문화 홍보와 계승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한복 등 문화 유산에 대한 외국의 침범에 대해 대처할 핵심적인 시스템은 전주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복이 자기들 것이라고 한다. 500년 전 명나라때 홍무제가 입었고 속국인 조선의 이성계가 따라서 입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두 왕의 초상화를 보면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복이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 것 이라고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홍보 부서 및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의문이다.

전통문화 보존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22일 한국 전통문화전당을 찾았다.

김은주 한복·놀이팀 팀장은 열린 한복 포럼을 지난 2023년에 처음 개최한데 이어 올해는 11월 9일, 열린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70여 명 정도가 참석 예정이고 한복의 글로벌화, '한국복식의 과거와 미래' 등이 주제라고 한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옥마을이나 한복이 전주 관광의 테마였던 것에 비하면 포럼 등 공적인 홍보·연구는 초기 단계로 보인다.

이어 문체부가 정한 한복문화주간이 10월 3주 차인데, 전주시는 2019년 한복문화주간을 시작으로 매년 한복문화주간에 참여해왔다. 올해는 지난 19일 경기전에서 한국 관광공사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한복 입고 노래하고, 한복 입고 촬영하는 포토존 조성,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복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또 찾아가는 한복 교육은 아이들에게 한복문화를 홍보한다. 한복 제작 교육과정으로 초·중·고 및 일반인을 대상이고 학생의 경우 1년에 50개 학교 150명을 실시한다.

끝으로 전주시 관계자에게 한복 등 문화유산에 대한 외국의 침범에 대하여 묻자,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인들에게 한복이 우리 전통문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1층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 장비를 비치해 관람하게 하고 숙달된 직원이 상주해 질문에 답하게 하겠다"며 "동시에 연간 상시적으로 한복 포럼이나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SNS 및 유튜브 등에 올리겠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고유 전통이라는 것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홍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시민과 관공서가 적극 관심을 갖고, 전통문화 도시 전주가 중국의 문화 침범에 적극 대처하고 전통문화 홍보와 침탈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옥기 기자